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사랑의 책망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22절

Tag:

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3:14-22)

요한은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일곱교회에게 편지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 라오디게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쓴 편지다.

밤모습에 갇혀있던 요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계시를 아시아의 일곱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에 의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한 교회였다. 라오디게아는 애게해 옆 소아시아 부루기야 지역에 있는 도시로, 로마로 향하는 도로가 관통하고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였고, 안약을 생산하고 (브루기아 가루),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도시였다. 또한 광택이 뛰어난 검은양모를 생산하여 인기가 많았다. 위치적으로는 산악지형의 구릉지대였고, 물류의 요충지여서 금융업이 발달하였으나, 물이 부족한 도시였다. 그래서 인근 도시에 수로를 이어서 히에라볼리에 있는 온천에서 뜨거운 물을 공급받고, 골로새에서는 빙하가 녹은 시원한 물을 공급받아서 생활하였다.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인 사정은 좋은 편에 속하였고, 교회에도 부자들이 많았다.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사자(담임목사)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이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 왜냐면 예수님은 삶이 아멘이신 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다.

또한 예수님을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 모든 근본의 원천이신 분이다. 모든 부요함의 원천도 예수님이시다. 부요함의 근원이신 분이 자칭 부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신다.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행위를 잘 알고 계신다. 충성심

이 미지근하다고 표현하심.

-흔히 부요한 사람들의 행사는 공사가 다망하다.

-스케줄이 아주 중요한 일들로 가득하다. 바쁜 일상 때문에 잠시 틈을 내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한 사람들은 스스로 매우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우선순위에 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사업상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파트너가 제안하는 행사에 빠지면 앓된다고 생각한다. 인간관계가 소중하고 접대가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또 같이 어울려 지내고,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노래방도 가면서 흥겨운 시간을 보내야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그러면 사업도 날로 번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세속적인 일들이 사업상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반면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선한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새로운 기술에 관한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를 서로 연구하고,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며, 어떻게 공정하게 사용되는지에 세심하고, 같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우선 내가 더 부자가 된 다음에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더 부자가 되면 가난할 때보다 훨씬 선하고 칭찬받을만한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그런데 부자가 되면, 더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한다. 그들이 내 물건을 사 줄 때, 나도 그들의 물건을 사 주어야 한다.

-결국 더 많은 수입은 더 많은 지출로 이어진다. 과거보다 더 많이 벌고 있으므로 안심하게 되지만, 과거보다 더 선한 일에 힘을 쏟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 왜냐면 선한 일에 대한 마음이 많을 뿐, 사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할 시간은 부족하다.

-부자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차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해 냉정하다는 말이다.

-‘뜨겁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해 충성스럽고 열정적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듯, 연인 사이에 ‘뜨겁지 않다’는 것은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일 뿐이다.

-단순히 ‘차갑지 않다’는 것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 연인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뜨거워’야 한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관계를 불편해 하신다. 차라리 ‘차가운’ 관계는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관계다. 그런데 ‘미지근’한 관계는 위험한 관계다. 잘못 하다가는 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심각하게 생각하신다.

16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제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드디어는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하여 버리실 것이다.

-더 이상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환난 가운데 고통 받게 되어도 도움이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차가워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미지근이나 차가운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뜨거운’것을 원하신다.

-문제는 하나님은 뜨거우신데, 내가 '미지근'하다는 것이다. 즉, 내가 하나님께 '뜨거워'야 한다.

-내가 언제 '미지근' 해 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하나님께 실망하는 어떤 계기가 있을 것이고, 그 실망에 대한 신학적인 모호함이 있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실망의 결론은 자신의 무능함으로 귀결된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다. 그러나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열정을 거두신 적이 없으시다. 다만,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보여야 할 때다.)

17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별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의 형편을 잘 깨닫지 못한다.

-위기가 닥쳐도 그것이 위기인지 모른다. 금방 지나가는 소나기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이 위기를 지나쳤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

-곧 곤고해 지는 것, 가련해 지는 것, 가난해 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지금도 늦었는데, 굽어 모아 보아야 보잘 것 없는 것만 남았는데, 스스로는 위기를 깨닫지 못한다. 만약 내가 미지근 하다면, 그것은 위기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눈이 멀었고, 별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는 안약으로 유명하고, 김정 양모로 유명하다.

-그런데 정작 스스로 부요하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눈이 먼 것과 자신이 별거벗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 자신에게 닥칠 곤고함을 보지 못한다.

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별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께서 권하신다. 다른 거 보다 금을 사라.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사라. 하나님께 돈을 지불하고 금을 사라. 연단된 신앙을 사라. 연단된 신앙이 곧 금이다.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 없어질 보배가 아니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금같은 영적 열정을 사야 한다.

-그리고 너희 사랑하는 검정 양모 옷을 사지 말고, 정결한 흰 옷을 사라. 모든 가식, 뽐내는 것, 인스타그램에 이쁜 얼굴 올리는 것 그만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파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볼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안약을 발라야 하나님의 가치가 보인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보인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사면, 나머지가 저절로 정리된다. 다른 사소한 것들은 자리를 잡게 된다. 사소한 문제들이 사라지게 된다.

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 받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한다.

-책망 받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책망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징계와 책망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답이다.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해야 한다. 더 연습하고, 더 연구하고, 더 다듬어야 한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가 정답이다.

-연단해야 금이 된다. 금도 연단 받지만, 인생도 연단 받아야 한다.

인생만 그런게 아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있는 존재는 모두 연단이 필요하다.

-부자가 되면 연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아랫 사람이 힘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진짜 부자는 연단의 가치를 높이 산다.

20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세속적인 관계가 답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면 그분은 내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이다.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뜨겁게 사는 자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앉으신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은 보상을 주신다.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3:14-22)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요한복음 성경공부(3)

성경: 요한복음 13장 /

Tag:

요한복음 13장~17장

13장 1;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2. 마귀가 유다에게 악한생각을 넣어 줌

18.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가롯 유다는 운명적인가? 운명이 아님. 사람이 자기의에 빠지게 되면 파멸에 이르게 됨을 설명하심.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저지하지 않으심.

-그러나 심령으로 괴로워하심.

21. 가롯 유다 때문에 심령이 괴로워하심

-선한 의도와 충성심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마귀가 역이용하는 것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사이의 전쟁.

*사랑의 방식

4절;세족식, 제자들의 허물을 씻어 주시는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무지함을 아시고, 실수를 아시는 주님. 그러나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하심은, 그런 자들의 실수를 씻어 주라는 뜻.

-목사는 모든 자들의 허물을 씻어 주지만, 입을 다무는 존재.

(천주교의 고해성사)

38.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 이 또한 베드로의 의이나, 그것은 유다처럼 마귀가 준 마귀의 의가 아니라, 베드로의 철없는 의.

-단순하고, 부끄럽고, 유아틱한 의.

14장. 설교말씀. 고별 설교.

-근심하지 말라.

-처소를 예비하러 가심. 마치 어린아이 달래듯 하시는 예수님.

8절;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12절;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15절; 나의 계명을 지키라! - 핵심이 되는 계명. 이 계명을 지켜야 모든 말씀이 효력이 있음. 사랑하라.

16절; 보혜사를 보내리라. 진리의 영. 너희 속에 계시리라.

27절;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31절; 여기를 떠나자;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자. 이후로는 도정에서나 겐세마네 동산에서의 설교.

15장

1절;포도나무와 농부. 가지와 줄기와 열매 맺음.

7절;조건적 기도.

9절; 사랑하라는 계명의 실제적 모습; 사랑 안에 거하라. 계명을 지키면서 교회 안에 거하라.

17절; 서로 사랑하라.

16장;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